

《값높이 내세워주신 소행》

주체104(2015)년 5월에 진행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의 높은 연단에 올라섰던 토론자들중에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말아키우는 강선의 20살난 처녀도 있었다.

몸소 기념촬영에 앞서 모범적인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만나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일곱이나 데려다키운다지라고 따뜻이 물어주시고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얼마나 장하오, 《처녀어머니》요, 《처녀어머니》라고 하시며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그후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에서도 특히 20살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의 소행은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덕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이때뿐이 아니였다.새로 건설한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으시였던 그이께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앞에서 지금도 《처녀어머니》를 만나던 때를 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속에서 《처녀어머니》와 같은 미풍선구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잊지 못해하신 《처녀어머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키운 처녀의 소행도 기특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찌 그가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어머니》로 될수 있었으랴.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가 있어 사회주의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미덕의 주인공들, 티없이 순결한 충성의 마음을 지닌 청년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음을 《처녀어머니》, 이 부름은 만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